



## 엔저에 따른 주력품목의 일본시장 점유율 감소, 중국·ASEAN은 해당품목 점유율 늘려

2013년중 원고엔저의 영향으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화장품, 농수산품의 대일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 ASEAN은 일본내 한국 점유율 하락품목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여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우리나라가 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원화의 엔화대비 절상율이 경쟁국에 비해 높은데다 엔화에 대한 對日 수출물량 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기업의 체질개선 및 비가격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1 원/엔 환율 동향

□ 최근 원/엔 환율은 2008년 9월이후 5년 4개월만에 100엔당 1,000원내외 최저치 기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는 원화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2012년 9월이후 약세기 조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원/엔 환율은 장중 한때 1,000원선이 붕괴(12/30일)

○ '80년대 이후 엔화대비 원화강세 시기는 '88~'90년, '95~'97년 '04~'07년 세차례가 있었음

- 1차는 3저호황 직후, 2차는 IMF 위기직전으로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시기였으나 3차는 세계경제 호황으로 한국의 수출증가세가 양호한 시기였음

〈 원/엔 환율 추이 〉



## 2 최근 對日수출 현황

□ 엔화약세가 시작된 2012년 말부터 對日수출입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수출은 2013년에 감소세가 두자릿대로 확대

○ 對日수출은 2013.1월중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이는 설 연휴 이동(1월 →2월)으로 통관일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對日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세 시현

- 설연휴에 따른 통관일수 변화 : 22.0일 (2012년 1월) → 24.0일 (2013년 1월)

○ 對日수입은 반도체 및 관련장비 수입이 증가했으나 對日 부품소재 의존도 감소와 경기 부진에 따른 철강·석유제품 수입 축소로 감소세 시현

- 대일 부품·소재 수입비중(%) : 25.2('10) → 23.6('11) → 23.0('12) → 20.8('13.1~11)

〈 월별 對일본 수출입 추이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1월	3,271 ( 11.3)	3,519 ( 7.6)	5,244 ( 1.0)	5,032 ( -4.0)
2월	3,503 ( 29.7)	2,901 (-17.2)	5,708 ( 9.1)	4,974 (-12.9)
3월	3,329 ( 2.2)	2,703 (-18.8)	5,883 ( -6.5)	5,333 ( -9.4)
4월	2,751 (-23.0)	2,430 (-11.7)	5,497 ( -5.7)	5,579 ( 1.5)
5월	3,094 ( 1.1)	2,733 (-11.7)	5,291 ( -4.8)	4,916 ( -7.1)
6월	3,403 ( 0.0)	2,823 (-17.0)	5,094 (-17.0)	4,672 ( -8.3)
7월	3,338 ( -2.1)	2,839 (-14.9)	5,268 (-10.2)	5,116 ( -2.9)
8월	3,180 ( -7.2)	2,757 (-13.3)	5,100 (-15.9)	4,854 ( -4.8)
9월	2,967 (-13.1)	2,917 ( -1.7)	5,327 ( -4.5)	4,902 ( -8.0)
10월	3,291 ( 0.0)	2,992 ( -9.1)	5,369 ( 0.5)	5,094 ( -5.1)
11월	3,622 ( 3.8)	3,415 ( -5.7)	5,339 ( -0.4)	4,707 (-11.8)
12월	3,047 (-18.1)	2,664 (-12.6)	5,243 (-10.7)	4,836 ( -7.8)
소계	38,796 ( -2.2)	34,694 (-10.6)	64,363 ( -5.8)	60,016 ( -6.7)

주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자료 :kita.net

□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철강, 화공, 전기·전자, 선박, 기계류의 수출 감소세가 가장 큼

○ 농수산물의 경우 기호가공 식품(-17%) 및 수산물(-20%)이 크게 감소했으며, 철강제품도 판재류(-22%)를 중심으로 감소세

○ 전기전자는 무선통신(-24%), 반도체(-15%), 컴퓨터(-42%)의 감소세가 가장 컸으며 화학기초원료(-12%), 플라스틱(-13%), 기계요소(-13%), 선박(-46%)도 두자릿대 감소

- 반면 자동차부품(3%) 수출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진동청소기, 믹서기 등의 가정용회전기기, 공기조절기, 반도체제조장비 등 일부품목은 호조를 보임

〈대일본 수출 호조·부진 품목 현황〉

(백만달러, %)

	품목명	2012년		2013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호조 품목	가정용회전기기	61	( 97.5)	149	(145.5)
	건전지및축전지	204	( -2.1)	220	( 8.0)
	반도체제조용장비	196	(-26.7)	204	( 4.4)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43	( -6.2)	164	( 14.5)
	유리제품	198	( 10.1)	221	( 11.2)
부진 품목	농산가공품	320	( 4.4)	267	(-16.6)
	기호식품	530	( 1.8)	463	(-12.7)
	어 류	304	( -8.5)	244	(-19.7)
	석유화학 기초유분	503	( 63.6)	446	(-11.5)
	플라스틱제품	985	( -2.9)	853	(-13.4)
	철강관	2,537	(-14.4)	1,989	(-21.6)
	발전기·전동기	162	( -0.5)	117	(-28.0)
	기계요소	478	( -9.2)	417	(-12.6)
	선박 및 해양구조물	321	( 24.9)	173	(-46.1)
	자동차부품	781	( 12.7)	802	( 2.8)
	반도체	2,642	(-14.1)	2,246	(-15.0)
	무선통신기기	3,132	( 18.2)	2,395	(-23.5)
	컴퓨터	678	( 25.0)	390	(-42.4)

주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자료 :kita.net

3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주요품목의 국가별 점유율

□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3년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임

-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중 크게 상승했으나 2013년중 엔화약세의 영향으로 하락세

- 일본 수입시장의 한국점유율(%) : 4.1('10년) → 4.7('11년) → 4.6('12년) → 4.3('13.1~11)

- 2013년중 일본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국가는 ASEAN과 한국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대비 2013년 점유율 변화 : ASEAN(-0.40%p), 한국(-0.27%p), 미국(-0.11%p)

- 반면 중국, 대만, 독일은 2013년들어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

- 중국은 통신기기·반도체, 대만은 반도체·철강·기초화학, 독일은 자동차부품·철강에서 일본내 점유율이 상승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 %p)

기 간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독일	ASEAN
2010년	4.1	22.1	3.3	9.7	2.8	14.5
2011년	4.7	21.5	2.7	8.7	2.7	14.6
2012년 (a)	4.6	21.3	2.7	8.6	2.8	14.6
2013.1~11 (b)	4.3	21.7	2.9	8.5	2.8	14.2
점유율변동 (b-a,%p)	-0.27	0.46	0.16	-0.11	0.03	-0.40

자료 : kita.net

□ 에너지를 제외한 일본의 주요 15개 수입품목중 한국은 10개품목에서 점유율이 하락하여 경쟁국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시장 점유율이 2012년에 상승했으나 2013년에 하락한 품목은 철강제품, 석유제품, 농산품, 생활용품 등 4개 품목으로 엔화약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 또한 '12년, '13년 모두 일본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은 반도체, 통신기기, 기계류, 플라스틱, 수산물, 섬유류 등 6개 품목으로 가격경쟁력 약화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
- 한국의 점유율 하락품목에서 점유율을 늘린 국가는 주로 중국, ASEAN인 것으로 나타남
  - 반도체, 통신기기, 플라스틱, 기계류는 중국이, 철강, 생활용품, 수산물, 섬유류에서는 ASEAN의 점유율이 상승

〈 일본의 15개 수입품목에 대한 국가별 점유율 변동 4분면 (엔화기준) 〉

(점유율(%))

〈 한국 〉				〈 중국 〉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품목	'12년	'13.1~11	품목	'12년	'13.1~11	품목	'12년	'13.1~11
생활용품	0.9	0.9	비철금속광물	13.9	14.6	통신기기	68.6	75.3
농산품	2.9	2.8	기초화학제품	6.9	7.4	반도체	14.7	20.3
석유제품	5.3	5.0	자동차부품	8.6	8.8	자동차부품	33.5	36.2
철강제품	29.9	26.6	전기전자	4.3	4.4	플라스틱	33.2	34.2
						기계류	49.5	49.6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섬유류	1.6	1.5	선박	0.5	1.2	석유제품	0.2	0.2
수산물	5.0	4.8				기초화학제품	21.6	21.5
기계류	5.9	5.5				비철금속광물	6.8	5.2
플라스틱	10.7	10.2				섬유류	72.8	70.9
반도체	12.7	10.8				전기전자	48.4	46.1
통신기기	11.8	8.9				생활용품	67.1	64.6
						선박	5.3	6.9
						수산물	17.7	17.8

< 대 만 >				< ASEAN >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품목	'12년	'13.1~11	품목	'12년	'13.1~11	품목	'12년	'13.1~11	품목	'12년	'13.1~11
석유제품	0.1	0.1	반도체	31.9	32.6	자동차부품	21.2	21.1	선박	31.2	33.4
비철금속광물	1.5	1.4	철강제품	7.1	7.5	기계류	12.4	12.0	섬유류	13.1	14.9
플라스틱	9.1	9.0	기초화학제품	3.1	3.5	기초화학제품	9.6	8.9	생활용품	12.4	14.0
			생활용품	2.2	2.4	비철금속광물	7.8	7.0	전기전자	19.9	21.1
			통신기기	2.5	2.6	석유제품	9.7	7.3	수산물	21.9	23.1
			농산품	0.5	0.5	플라스틱	20.9	21.6	플라스틱	20.9	21.6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기계류	3.4	3.3	전기전자	3.9	4.0	농산품	12.1	11.5	철강제품	7.7	10.2
섬유류	1.3	1.2				통신기기	7.6	6.0			
자동차부품	3.7	3.4				반도체	19.3	16.2			
선박	1.2	0.9									
수산물	3.7	3.0									

주 : 1. ⊕는 해당년도의 점유율 상승, ⊖는 점유율 하락을 의미하며, 2013년은 1~11월 기준.  
 2. 전기전자는 반도체 및 통신기기 제외

#### 4 원/엔 환율 변화에 따른 對日 품목별 수출 영향 추정

□ 원/엔 환율 변동에 따른 품목별 수출물량 변화를 추정된 결과 화공품, 철강, 농수산품에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원/엔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화공품 4.4%, 철강 3.9%, 농수산품이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기전자는 2.0%, 기계류는 1.0%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원/엔 환율 변화에 따른 품목별 對日 수출물량 탄력성 추정1>

품목	원/엔 환율	전기수출물량	일본의 산업별 생산지수
전기전자 (8)	0.198**	0.696***	0.544***
철강제품 (61)	0.391***	0.716***	0.773***
화학공업제품 (2)	0.441***	0.576***	1.348***
기계류 (72,75)	0.100*	0.783*	0.749*
농수산품 (01, 04)	0.335***	0.509***	1.610***

주 : 1. \*\*\*는 1%, \*\*는 5%, \*는 1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 ) 내는 MTI 산업분류 코드

1) 추정식은  $\ln XQ_t = \ln XQ_{t-1} + \ln Yen_t + \ln IP_t$  로, XQ은 품목별 대일수출물량, Yen은 원/엔 환율, IP는 일본의 산업별 생산지수(단, 농수산품은 일본 2인 이상 가구의 식료품 지출지수). 분석기간은 2000.1/4분기~2013.3/4분기

## 5 결론 및 시사점

- 원고·엔저로 제3국 시장에 앞서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농수산물, 철강제품, 반도체, 통신기기,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의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철강, 화학, 농수산물의 원/엔환율 수출물량 탄력성이 0.3~0.4에 달해 對日수출에 있어서의 환율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본시장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점유율 하락이 경쟁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우리나라가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원화강세로 엔화대비 절상폭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데 기인
    - 주요국통화의 엔화대비 절상율(2013년): 한국 20.5%, 중국 19.7%, 대만 17.9%, 말련 16.6%
- 향후 엔화약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일본기업이 엔고시절 추진했던 기업체질 개선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환리스크 관리 강화 및 수출선 전환, 엔화 결제비중 축소 등의 노력 필요
    - 대일수출의 엔화결제비중은 '12년 51%에서 '13년중 46%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결제통화 다양화 노력이 요구
  - 장기적으로는 ‘마른걸레도 다시 짠다’ 는 철저한 일본식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품질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창의·혁신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제고 필요

〈 對日 수출의 결제통화별 비중 〉

	달러	엔화	유로화	원화	기타	소계
2010년	38.80	58.60	0.10	2.50	0.00	100.0
2011년	45.20	51.90	0.30	2.60	0.00	100.0
2012년 (a)	45.50	51.40	0.20	2.90	0.00	100.0
2013.1~9월 (b)	50.19	46.01	0.29	3.48	0.02	100.0
비중변화 (b-a, %p)	4.69	-5.39	0.09	0.58	0.02	—

자료 : 한국은행

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장상식 연구위원 (6000-5153, [paviano@kita.net](mailto:paviano@kita.net))